

■ 문재인 대통령 교육공약 되찾기 2차 토요일 촛불문화제 한자리(2018. 10. 2)

꿈꾸는 우리들, 촛불을 들다!

-문재인 대통령 교육공약 되찾기 촛불문화제

-2018년 9월 29일 토요일 2차 문화제 열려 : 공론화 팩트체크, 시민발언, 국악공연 등

-10월 6일 토요일 저녁 6-8시 3차 촛불문화제 '10월의 어느 멋진 날' : 홍순관, 유이분, 안현 등 참여

-참여신청 : 하단 배너 클릭하여 시트내용을 작성후 제출

문재인 대통령 교육공약 되찾기 2차 촛불문화제가 9월 29일 토요일, 청계광장 파이낸스빌딩 계단 앞에서 열렸습니다. 2022 대학입시제도 개편안으로 무너진 교육공약을 우리 손으로 되찾기 위해 교사, 학부모, 학생, 시민들이 한자리에 모여 촛불을 들고 주권자의 요구를 외치는 시간이었습니다.



2차 촛불문화제는 국악공연팀 ‘아마씨’의 신명나는 공연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우리 가락으로 서로를 격려하고, 힘을 얻고 생기를 불어넣는 무대가 펼쳐졌습니다. 아마씨 여러분, 다음에도 꼭 다시 멋진 무대 함께 해주세요!



이번 문화제는 팟캐스트 형식으로 열렸습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의 공식 팟캐스트인 ‘남장군과 홍변의 교육과 전쟁’ 컨셉으로, 남장군 남형은 회원, 홍변 홍민정 변호사이 진행을 맡았습니다.



1부에는 구본창 사교육걱정 정책국장이 등장, 우리가 빼앗긴, 잃어버린 교육공약이 도대체 무엇인지에 대해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구본창 국장은 서태지와 아이들의 교실이 데아가 1994년 발표되었는데 30년이 지난 지금 여전히 현실이 달라지지 않았다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모든 아이는 우리 아이다’라는 슬로건으로 과도한 입시경쟁 해소하고 상대평가 체제를 절대평가로 전환하여 모든 아이들이 교실에서 살아나게 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교육공약을 반드시 이행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2-3부에는 올 여름 교육이슈와 관련해 가장 핫한! 논란의 중심이었던 ‘2022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 과정에 직접 참여했던 김영식 좋은교사운동 공동대표와 혁신학교졸업생연대의 이태경 학생이 게스트로 참여해 공론화 과정에 있었던 비하인드 스토리를 들려주었습니다. 이른바 ‘대입제도 공론화, 그것이 알고싶다!’



김영식 공동대표와 이태경 학생은 수능절대평가 도입이 중심이었던 의제2팀의 시나리오 작업을 시작으로 시민숙의단 워크샵에도 참여하여 시민숙의단을 직접 만나 그들을 설득하는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김영식 공동대표는 총 4팀 중 상대평가를 주장한 팀이 세팀, 절대평가를 주장한 팀이 한팀이었기 때문에 절대평가팀을 향한 협공이 있었고, 우리가 주장하는 내용들이 숙의단 가운데 오래 남아있지 못해 아쉬웠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가지 아쉬웠던 점으로는 ‘미래’ ‘비전’ 등의 단어를 사용할 수 없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숙의단 워크샵 둘째날 오전 시민숙의단이 8분 정도의 영상을 보는 시간이 있었다. 그 중 아이들이 직접 자신들이 바라는 학교에 대해 이야기하는 장면이 있는데, 아이들이 바라는 학교가 되려면 의제2팀이 주장하는 학교가 되어야했기 때문. 의제2팀에 유리한 영상이기 때문에 틀지말라고 상대평가팀들이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뿐만아니라 ”우리시대 미래 가치는 무엇인가“ ”우리 미래는 어떻게 가야하는가“ 등의 질문도 분임토의에서 던질 수 없었다고 합니다. ‘미래’ ‘비전’ ‘가치’와 같은 개념은 의제2팀이 말하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다른 팀들의 요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에피소드를 통해 우리나라 교육의 미래와 비전을 고민하는 시나리오가 4개의 시나리오 중 어떤 것인지를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혁신학교졸업생연대의 이태경 학생은 이번 공론화에서 학생부종합전형(이하 ‘학종’)이 화두가 되었음에도 정작 참여자 중 학종을 경험해 대학에 간 사람들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

며, 학종 경험자 입장에서 학종에 대한 선동과 팩트를 구분해 숙의단에 전달하려 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번 공론화 토론들이 논리와 논리가 붙은 토론이 아니라 꾸밈과 논리가 붙었기 때문에 오히려 무엇이 교육적으로 옳은 것인지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학종 경험자로서 ”학종도 불완전한 전형, 문제점이 당연히 존재한다. 그러나 이는 전국에 만연한 문제가 아니라 특정 사례가 과도한 일반화가 되는 것이며 사람이 문제인데 제도가 문제인 것으로 선동하고 팩트가 걸러지지 않은채 이를 모든 학교의 모습이라고 생각한다“는 점에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제도를 악용하고 악용하도록 부추긴 사교육의 문제이며, 제도 이상의 과도한 선동과 싸우는 것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김영식 공동대표와 이태경 학생이 들려준 공론화 비하인드 스토리를 통해 교육적으로 무엇이 올바른 방향이고 가치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이 날도 시민들의 발언이 이어졌습니다. 일반계 고등학교 교사인 김선희 선생님은 “우리 교육 현실은 누군가 1등급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1등급에 있는 누군가가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한다. 그것을 위해 학부모들도 문제풀이 위주 실전대비를 해달라, 자습시간을 달고 요구한다. 수능 운영시간에 맞추기 위해 이미 사라진 0교시가 부활하는 경우도 있다”며 우리의 교육 현실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교사로서 “비정상이 되어버린 교육의 현실을 다수가 선택한 정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해서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며 우리 교육의 쇄신을 위해 일조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또한 “모든 아이들을 사랑하는 교사의 양심으

로 양적평가, 상대평가를 비롯한 과잉학습 체제인 2022 대입제도를 수용할 수 없다. 90%의 실패자를 담보하는 평가에 절대로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건강한 리더는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바로 잡는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런 리더일 것이라 믿고 있다. 부디 이제라도 보다 많은 아이들을 끌어안을 수 있는 문재인 대통령님의 더 나아진 교육공약들을 하나하나 되살리고 실천해주시기 바란다”며 교육공약 이행에 대한 당부의 목소리를 남겼습니다.



고등학교에서 사회를 가르치는 조창완 선생님은 이번 대입제도 개편안을 듣고 “오랫동안 사랑한 여인으로부터 실연을 당한 기분”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수능이 30%로 확대된 것은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수시에서도 수능최저기준이 있기 때문에 현재에도 전국 모든 고3 교실에서 EBS문제풀이 수업이 이뤄지고 있는데, 이것이 30%까지 확대되면 실제로는 70-80%까지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였습니다. 또 가장 아쉬운 점으로는 ‘고교학점제’의 실종을 꼽았습니다. 고교학점제라도 살아난다면 그것을 지렛대 삼아 내신 절대평가를 주장하고 2025 대입제도를 희망적으로 볼 수 있었는데 고교학점제 도입이 유예되면서 그 논의조차 물 건너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자리에 모인 우리는 교사이고 부모이다. 침몰하는 우리 교육을 놓고 어떻게 가만있겠나. 그래서 이 자리에 모인 것. 이거라도 해야지, 우리가 할 수 있는 뭐라도 해야 우리 아이들을 볼 수 있는 면목이 생긴다. 우리가 조그만 촛불, 조그만 노력이라도 함께 하자”며 끝까지 함께 힘을 모으자고 당부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상근자들이 준비한 ‘신과함께-입시지옥’ 퍼포먼스, 청중과의 대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펼쳐졌습니다.



1차에 이어 2차에도 많은 시민이 참여하여 우리가 잃어버린 소중한 공약에 대해 함께 슬퍼하고 이를 되찾기 위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앞으로도 11월 3일까지 매주 토요일, 청계광장 파이낸스빌딩 계단 앞에서 7차까지 문화제는 이어집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모든 노력을 다해 침몰해가는 우리 교육이 되살아날 수 있도록 관심있는 시민들의 참여와 지지 부탁드립니다.



■ 행사명 : 문재인 대통령 교육공약 되찾기 국민운동 토요 촛불문화제

■ 기 간 : 2018년 9월 15일~11월 10일(매주 토요일 6시~8시, 단, 추석 연휴 22일 토요일 행사는 진행되지 않음)

※ 행사 일정(시간은 저녁 6-8시로 모두 동일)

1차 문화제 9월 15일 토요일

2차 문화제 9월 29일 토요일

3차 문화제 10월 6일 토요일

4차 문화제 10월 13일 토요일

5차 문화제 10월 20일 토요일

6차 문화제 10월 27일 토요일

7차 문화제 11월 3일 토요일

■ 장 소 : 광화문 청계광장 옆(파이낸스 빌딩 계단 광장)

■ 주관단체: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좋은교사운동, 전국교육연합네트워크, 사교육 걱정없는세상, 광주교사노동조합 등

2018. 10.02. 문재인 대통령 교육공약 되찾기 국민운동
(문의: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최현주 연구원 02-797-4044 내선 501)